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박후건

일본 대지진과 북한 핵개발

지난 3월 11일 오후 2시께 일본 동북부 지역에서 일어난 강도 9.0의 대지진은 바로 이웃인 우리에게도 커다란 충격이었다. 이어진 원전폭발로 인해 원자로의 냉각장치가 정지돼 내부의 열이 상승, 연료인 우라늄을 용해함으로써 저부(底部)가 녹아버리는 멜트다운(meltdown)과 방사능 누출 위험은 원전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일깨워 주었다.

이러한 사고는 안전에 있어서는 자타가 공인한다는 일본에서 일어났다는 것에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강도 9.0과 같은 사상 초유의 지진에 과연 안전할 수 있는 원전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자아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1호기가 폭발한 뒤 미국의 기술 지원 제안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거부했다는 것과 폭발 직후 프랑스의 붕산 제공 의사에 답변이 없던 일본 정부가 사고 발생 나흘이 지나서야 한국과 프랑스 정부에 붕산 지원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본정부의 잘못된 판단과 자세, 그리고 초기 대응 실패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키웠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것을 리더십의 부재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안전에 대한 준비는 자신들이 최고라는 자만심이 초기 대응 실패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일본대지진, 그리고 원전폭발에 대해 세계 각국, 특히 전통적으로 일본과 가깝고도 먼 나라인 한국에서도 도움의 행렬이 이어지는 것은 인류애적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총 전기생산량의 약 40%를 원자력 발전에서 얻고 있어 남의 일만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 지진으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비판과 부정적인 여론이 일고 있지만 석유 고갈시대에 아직 그 어느 나라도 확실한 대체에너지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수요는 잠시 주춤하겠지만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자력발전의 안전은 이번 지진에서 알 수 있듯이 원전을 가동하는 한 국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난번 구소련의 체로노빌사태 처럼 주변국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 이슈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국제적 협의와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과 같은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단지 원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이다. 북한이 원전을 개발하려는 이유는 다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전력 이외에 원자력발전에서 부산물로 얻을 수 있는 핵 물질을 무기화해 미국과의 대결에서 유리한 협상카드로 사용하려는 것과, 원자력발전의 원료가 되는 우라늄이 북한에 다량으로 매장돼 있어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을 겪고 있는 북한이 이를 전력 발전으로 사용하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2004년 5월 23일자 기사에서 백악관 트렌트 두피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북한에 고품질 우라늄 400만 톤이 매장돼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세계 총 매장량에 육박하는 양이다.

문제는 북한이 수세적인 입장에서, 고립적인 상황에서 이를 추진하는 데 있다. 북한이 한국과, 그리고 국제사회의 협의나 협력 없이 원전 건설을 추진한다면 북한의 원전은 이번 일본 동북부에서 일어난 지진과 같은 자연 대재앙에 취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지난 85년의 체르노빌 사태를 초래한 인재의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또한 남과 북이 지금과 같은 냉전과 불안전하고 위험한 정전체제가 지속되고 악화된다면 핵을 무기화 단계로 가고 있는 북한과의 핵전쟁 또한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게 되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일본 동북부 대지진 이후 북한은 백두산 화산에 관한 공동조사를 한국 측에 제안했다. 우리 정부는 일단 민간차원의 공동조사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발표했고 29일 첫 모임을 가졌다. 백두산 화산 폭발에 대한 우려는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 주변국 모두의 것이다. 북한의 핵 개발 역시 마찬가지이며 정치적인 사항으로 미룰 수 없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6자회담이 재개돼야 하며, 6자회담이 열리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다. 한국은 북한 원자력 개발의 방관자가 아니라 중요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이번 백두산 화산에 관한 공동조사가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되어 남북정상이 서로 만나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경남대 정외과 부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 설

200일 남은 영암 F1 성공개최 원년돼야

오는 10월14일부터 3일간 열리는 영암 F1(포뮬러원) 코리아 그랑프리가 2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영암 F1은 반드시 성공개최가 돼야 한다. 올 대회가 영암 F1의 지속적인 진전이냐, 아니면 단발성 실패로 끝날 것이냐를 결정 짓는 분수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치른 첫 대회는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주장이 대회 직전에야 겨우 완공될 정도로 준비기간이 짧은데다 정부의 관심과 지원 부족으로 교통·숙박 등 기반시설까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등 여러 면에서 미흡함이 드러난 게 사실이다. 특히 대회운영법인(KAVO)의 신뢰성 상실과 전남도·조직위와의 마찰은 영암 F1의 대외 이미지마저 추락시켜 흥행에도 실패, 6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올 영암 F1의 성공 여부는 지난해 드러난 문제점을 얼마나 극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경기장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원활한 교통 소통, 고급 숙박시설의 확보, 적자대회를 벗어나기 위한 마케팅 강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전남도도 지난해 대회를 거울삼아 교통과 숙박, 마케팅에 대해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전남도만의 역량으로는 역부족이다.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것이다.

F1대회는 전남지역만의 성장동력이 아니다. 세계 3대 메인 스포츠 이벤트로 꼽히는 F1대회가 창출하는 경제 파급 및 국제적 국가 홍보 효과 등을 감안하면 범 국민적 행사다. F1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정부가 앞장서야 하는 이유다.

200일 밖에 남지 않은 영암 F1대회가 성공개최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전남도, 조직위는 물론 모든 지역역량을 결집할 때다.

예식장·대형 음식점 위생 엉망이라니

광주지역 예식장 음식점과 유명 대형 식당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간장이나 캐러멜, 어묵, 표고버섯 등을 사용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업소 가운데 일부는 유통기한이 길게는 5년 이상 지난 재료를 쓰고,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참기름을 사용했다고 하니 충격적이다.

광주시는 최근 예식장 내 음식점과 대형음식점 105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4곳을 적발했다고 한다. 5곳 중 1곳 꼴로 위생상태가 엉망인 셈이다.

서구 농성동 K웨딩홀은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했으며, G웨딩홀은 식품표시가 없는 참기름을 쓰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구 서창동 Y음식점은 유통기한이 2005년 11월인 간장과 캐러멜을 보관 및 사용하다가 적발됐으며, 서구 치평동 G음식점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은 물론 표시 없는 참기름을 사용했다고 한다.

다중이 이용하는 결혼예식장과 대형 음식점의 위생관리가 이 정도라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쓰게되면 집단 식중독은 불보듯 뻔하다. 심지어 5년을 넘긴 재료까지 사용한 곳도 있다고 하니 당국이 그동안 무엇을 했는 지 한심할 따름이다.

예식장 음식점은 사실상 강제성을 띠고 있어 속수무책인데다 유명 식당 역시 신뢰가 깨져 손님이 느끼는 배신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먹을거리를 놓고 속이고 속는 것은 씁쓸하다 못해 억울하기까지 하다.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음식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당국은 상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업주들의 파렴치한 일탈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단속과 함께 엄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위반 업소에 대한 공개도 주저할 필요가 없다.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미봉책으로는 내성만 키울 뿐이다. 폐쇄 조치만이 재발을 막는 길이다.

의료 칼럼

임성륜

새로운 특수 영상 내시경 위장관암 발견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암에 대한 예방과 조기 발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특히 소화기암은 전체 암 발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암 치료와 사망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이 막대해 관심의 대상이다.

소화기암에서 헬리코박터균의 박멸에 따른 위암의 발생 감소를 제외하면 암에 대한 예방 대책이 명확지 않아 현재까지는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그 중 식도, 위, 대장에서 발생하는 위장관암의 조기 발견은 생존율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개복술 대신 내시경을 이용한 절제가 가능해 위나 장의 기능을 보존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 선별 검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내시경 검사는 위장관암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최근 광학 기술의 발전을 통해 새로운 개념의 내시경 기기들이 선보이기에 이르렀다. 구조 및 색채 강조 등의 화상 처리기술을 적용함으로써 화상을 현저하게 개선한 확대내시경, 협대역내시경, 자가형광내시경 등의 영상증강내시경이 개발되었다.

이들은 기존의 일반내시경에서 감별이 어려웠던 미세한 병변을 간단한 스위치 조작만으로 점막 표면을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어 전암성 병변 및 조기암의 진단 능력이 향상됐고 실시간으로 조직학적 유형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 적절한 치료법을 신속히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검사의 비용, 편의성, 그리고 정확성 등을 고려할 때 좀 더 이상적인 검사 방법이라 생각한다.

이에 위장관암의 조기 발견을 위한 다양한 특수내시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색소내시경은 일반내시경을 통해 점막 표면에 액상 색소를 직접 뿌려 요철을 강조하거나 특이 반응을 유도하는 검사법이다. 종양성 병변의 발견과 감별 진단에 유용하고 기술적으로 쉽고 위험성이 적으며 경제적으로도 저렴해 현재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다.

확대내시경은 일반내시경보다 점막을 80~100배까지 확대해 위장관 점막과 혈관 표면의 미세구조를 정확하게 관찰하는 검사법으로 종양성 병변의 발견은 물론 병변의 조직학적 유형과 침범 깊이도 예측할 수 있어 조직 검사의 불필요성이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일반내시경에 비해 다루기가 어렵고, 시간이 걸리며, 관찰자 사이의 일치도가 낮아 아직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이다.

협대역내시경은 특수한 광학필터를 이용하여 적·녹·청의 세 가지 색깔의 파장을 분리하고, 그 중 짧은 파장의 청색광 영역을 상대적으로 강화해 영상을 재구성하여 색소 도포 없이 점막 표면과 혈관상 명확한 관찰이 가능하다. 식도의 바렛상피의 진단과 확대내시경과 병용하여 위나 대장의 전암성 병변과 조기암의 진단에 도움이 된다. 색소내시경과 달리 검사 시간이 길지 않고 번거롭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임상적으로 유용성이 크다.

자가형광내시경은 정상 조직과 종양 조직은 서로 다른 자가형광 성질을 가지고 있어 특수 파장만을 흡수하는 필터를 이용하여 두 조직을 구분하는 검사법이다. 형광증감물질의 투여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선별검사로 적용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도 진단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점과 낮은 해상도는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다.

〈상무병원 소화기내과 원장〉

기 고

김관중

'블루 골드' 시대의 물관리

지난 20세기가 '블랙 골드'(Black Gold) 석유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블루 골드'(Blue Gold) 물의 시대라고 한다. 미국 포춘(Fortune)지는 "20세기에 석유가 우리에게 주었던 것을 21세기에는 물이 대신할 것"이라며 "물이 국가의 부(富)를 결정하는 귀중한 생필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 제 35대 대통령 케네디는 "물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노벨평화상과 과학상을 동시 수상할 것이다"고 했다. 이렇듯 물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됨에 따라 효율적 물관리에 대한 요구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

물관리란 기상학적인 메커니즘에 의해 형성된 강수, 즉 물을 적절하게 담아두거나 알맞은 시기에 방류해 홍수나 가뭄과 같은 재해를 줄이고 이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이것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조적 수단이 바로 '댐'이다.

전남의 젖줄인 주암 다목적댐(총 저수용량 7억700만㎥)은 보성강 수계인 순천시 주암면에 위치한 본댐 저수지와 이사천 수계인 순천시 상사면에 위치한 조절지댐 저수지를 터널로 연결해 수자원 이용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유역변경식 댐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가뭄과 홍수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전남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주암 본댐은 광주, 나주, 화순, 목포 등 전남 서부권에 하루 평균 30만t의 용수를 공급중이고, 주암조절지 댐은 순천, 여수, 고흥, 보성, 광양 등 전남 동부권에 하루평균 50만t 규모의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또한 수력발전을 통해 5000세대 이상 공급 가능한 54G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두 댐의 홍수조절 용량은 8000만t으로 섬진강, 보성강 및 이사천의 댐하류 홍수피해 경감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전남지방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던 지난해 홍수기(6~9월)에는 9억6000만㎥의 홍수가 주암댐에 유입됐으나, 과학적인 홍수관리로 유입량의 35%(3억3000만㎥)를 댐에 저류하고, 초당 500㎥ 이내에서 조절방류를 시행해 댐 하류 구례 수위국 기준 하천수위를 최대 1.5m 낮춤으로써 섬진강 하류 홍수피해를 크게 경감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이수(利水)적 측면에서도 홍수기 동안 저수율을 53% 상승시켜 홍수기까지의 용수공급을 위한 저수량을 충분히 확보해 이상가뭄에도 대비하는 성공적 물관리를 수행했다.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는 올해는 홍수재해 관리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져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물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렇듯 물은 한 방울도 헛되이 버릴 수 없는 귀중한 자산이기에 물관리 기술의 고도화 또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겠다.

광주·전남의 먹는 물을 책임지고 있는 주암댐관리단은 더욱 정교한 물관리를 통해 물의 이용과 재해로부터 안전한 '블루 골드'(Blue Gold)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지역의 파수꾼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K-WATER 주암댐관리단장〉

한전, 전선 절도범 신고 포상제 실시

최근 들어 전선도난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절도범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대형화되고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한전은 이에 대한 대응책을 여러모로 강구하고 있다.

전선 절도는 단순한 절도에 그치지 않는다. 정전으로 인한 주민불편은 물론 농사용 전기를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게 돼 농민에게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복구비용도 피해금액의 몇십 배에 달해 경제적 손실도 막대하다. 또 전선 절도범의 경우 감전이나 추락 등 인명을 앗아가는 사고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한전에서는 전선도난예상지역에 도난경보기 등을 설치하고 심야시간대 지역 파출소와 합동으로 특별순시활동을 벌이는 등 전선도난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선 절취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며 고물상에서도 도난전선 취급을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휴일이나 새벽에 전기공사업체를 가장하여 전선을 절취하는 현장을 목격하거나 전선을 보관 또는 운반하는 차량을 발견시 한전(832-3111, 또는 123), 파출소(112)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결정적인 제보로 범인이 검거되면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장을석·한국전력고흥지점 배전운영실장

無等鼓

나는 가수다

MBC가 최근 '우리들의 일밤'(일밤) 새코너로 기획한 '나는 가수다'가 화제다.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7명의 가수가 경연을 벌이고 500명의 청중평가단 심사를 통해 매회 계속해서 한 명의 탈락자를 낸다는 포맷은 상상하기 힘든 발칙한 도발(?)이었다.

정통록과 록발라드의 대명사 윤도현, 스탠다드(모든 장르 소화) 김범수, 시적이며 클래식 재즈스타일의 이소라, 알엔비의 새로운 세계 정엽, 테크닉과 파워보이스의 요정 박정현, 소울의 대부로 한국의 스티비원더 김건모, 애절한 발라드 보이스 백지영 등이 경연을 통해 누군가 한 명이 탈락하다는 것은 재미있으면서 위험했고, 위험하면서도 재미있었다. 이들은 선의의 경쟁을 벌이며 혼을 실은 열창으로 진정한 노래의 의미를 전달했다.

하지만 첫번째 탈락자인 김건모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주기로 함으로써 '나는 가수다' 프로그램은 담당 PD교체, 프로그램 개편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 김건모 역시 여론의 집중포화로 스스로 물러났다. 원칙과 룰 속에 결정된 사항을 번복하면 또 하나의 큰 문제가 발생된다는 평범함 진리를 그대로 보여줬다.

방송 후 "이것이 진짜 음악"이라고 감탄하며 가요계에 판치고 있는 후크송-오토튠을 비판하며 이 프로에 대해 많은 애정을 보였던 이들은 등을 돌렸다.

출연자 내면에 선배와 국민가수라는 무의식적 인정과 권력이 작동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묻고 싶다. 그 누구도 재도전 결정에 대해 "이건 아닙니다. 룰은 지켜야 합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사회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가정, 직장, 학교 등에서 이런 면에서 '나는 가수다'의 출연진과 제작자는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원칙과 룰이라는 사회적 약속을 깨면 그로인해 또다른 문제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최재호 정치부 차장 lion@kwangju.co.kr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대표 FAX	222-4918〉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FAX	222-8005〉
정경부	2200-612	〈FAX	222-0195〉
〈대표 FAX	222-4918〉	광고마케팅국	227-9600
사회부	2200-616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267〉	〈FAX	227-9500〉
문화생활부	2200-661	〈FAX	227-9500〉
여론매체부	2200-621	디자인	2200-536
체육팀	2200-697	서울지사	02-773-9331
사진부	2200-693	기획사업국	2200-555
조사부	2200-571	〈FAX	02-773-9335〉
전산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